



미 증시, 고용 호조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6 일(목) 미국 증시는 6 월 ADP 민간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건축 경계감이 재차 증폭됨에 따라, 10 년물 금리 4%대 진입한 여파로 인해 장중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다우 -1.1%, S&P500 -0.8%, 나스닥 -0.8%). 업종별로는 에너지(-2.5%), 경기소비재(-1.7%), 유틸리티(-1.2%), 커뮤니케이션(-1.1%) 등 전업종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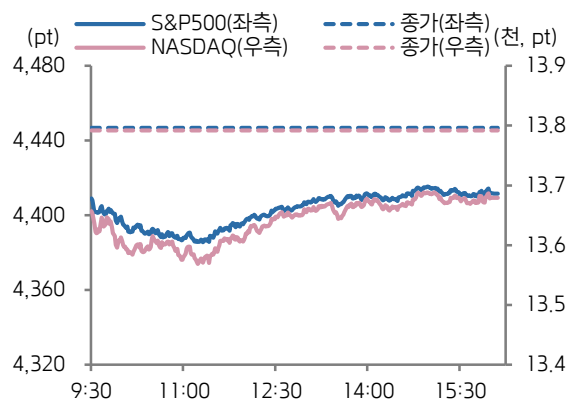
미국의 6 월 ADP 민간 신규고용은 49.7 만건으로 전월(26.6 만건) 및 컨센(22.8 만건)을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레저 및 접객(23.2 만건) 등 서비스업(37.3 만건) 부분의 고용이 큰 폭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이 전반적인 민간 고용의 증가세를 주도. 반면, 6 월 임금 상승률은 6.4%(YoY)로 전월(6.6%)에 비해 둔화되는 등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은 차츰 완화되고 있는 모습. ADP 측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은 정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8 만건으로 전주(23.6 만건) 및 컨센(24.5 만건)을 상회했으나,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72.0 만건으로 전주(173.3 만건) 및 컨센(174.5 만건)을 하회. 6 월 채용공고는 982.4 만건으로 전월(1,032 만건) 및 컨센(993.5 만건)을 모두 하회했으며, 채용공고 비율도 5.9%로 전월(6.2%)에 비해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6 월 ISM 서비스업 PMI는 53.9로 전월(50.3) 및 컨센(51.0)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신규주문(52.9- > 55.5), 생산(51.5- > 59.2), 고용(49.2- > 53.1), 신규수출(59.1- > 61.5) 등 주요 세부항목들이 동반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서비스 업황의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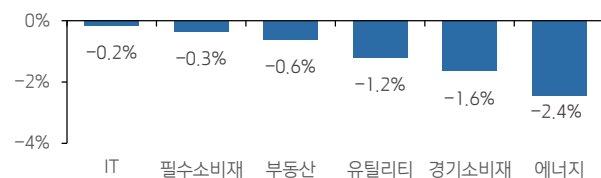
로리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는 2%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시장 전망은 연준으로 하여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게 만든다고 지적. 또한 6 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는게 적절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는 점진적인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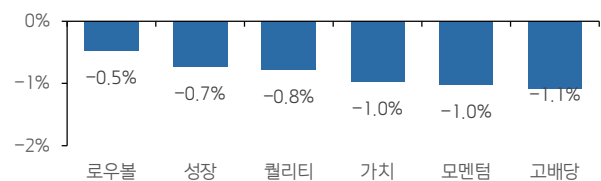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56.29	-0.88%	USD/KRW	1,301.20	+0.2%
코스피 200	336.20	-0.84%	달러 지수	103.12	-0.25%
코스닥	870.53	-2.32%	EUR/USD	1.09	+0%
코스닥 150	1,346.24	-2.26%	USD/CNH	7.26	+0.03%
S&P500	4,411.59	-0.79%	USD/JPY	144.07	+0%
NASDAQ	13,679.04	-0.82%	채권시장		
다우	33,922.26	-1.07%	국고채 3년	3.672	+5.7bp
VIX	15.44	+8.89%	국고채 10년	3.715	+8bp
러셀 2000	1,842.23	-1.64%	미국 국채 2년	4.981	+3.6bp
필라. 반도체	3,577.49	-1.24%	미국 국채 10년	4.029	+9.8bp
다우 운송	15,399.45	-0.81%	미국 국채 30년	4.000	+7.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23.09	-2.93%	WTI	71.8	+0.01%
MSCI 전세계 지수	673.81	-1.27%	브렌트유	76.48	-0.22%
MSCI DM 지수	2,924.55	-1.22%	금	1915.4	-0.61%
MSCI EM 지수	984.69	-1.64%	은	22.69	-2.2%
MSCI 한국 ETF	62.81	-1.95%	구리	372	-0.8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0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7.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인한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옐런 재무 장관의 방중 관련 뉴스플로우 3. 삼성전자 2 분기 잠정실적 결과에 따른 반도체주 투자심리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6 월 민간 고용 및 ISM 서비스업 지수 서프라이즈는 제조업 부문의 부진과 상반되게 대체로 서비스업 경기는 양호함을 시사하며 추가 금리인상 우려를 높였지만, 장 후반 낙폭을 축소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증시 하단은 견고하며 단기 조정 국면에 불과하다는 전망은 유지.

6월 ADP 민간고용은 49.7만건(예상 22.5만건, 전월 26.7만건)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두배 이상 상회. 제조업 12.4만건, 서비스업에서 37.3 만건 증가했으며, 특히 레저·접객 23.2 만건, 교육·헬스서비스 7.4 만건 증가하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강한 고용경기를 보여줌. 6월 챌린저 해고건수가 YOY 25.2%(전월 286.7%) 증가에 그친 점도 금융, IT 산업에서 감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추가로 6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53.9(예상 51.2, 전월 50.3) 기록하며 확장국면 지속. 지표 발표 이후 미국채 10년물금리는 지난 3월초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 2년물 금리 역시 5% 가까이 급등했으며, 시장은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과 더불어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

다만 ADP 민간고용지표는 실제 고용보고서 결과와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 이외에 실업수당청구건수의 증가, 5월 JOLTS 구인이직 건수의 예상치 하회(982.4 만건, 예상 990.0 만건, 전월 1,032 만건), 파월 의장이 중시하는 실업자수 대비 구인건수 역시 전월 1.8배에서 1.6배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 7월 FOMC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및 성장주들의 방향성 베팅은 오늘 밤에 발표될 6월 비농업고용자수(예상 22.5 만건, 전월 33.9 만건), 실업률, 임금상승률 까지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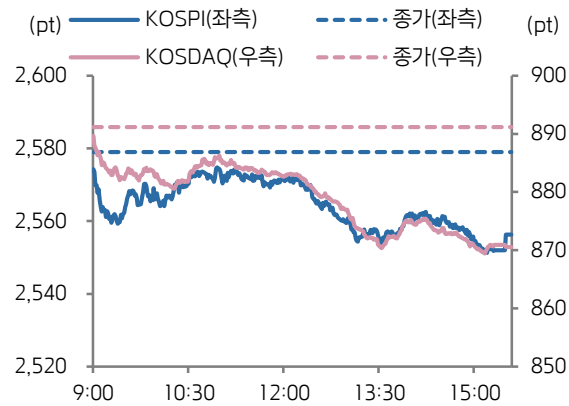
6일(목) 국내증시는 매파적인 의사록 공개 이후 시장 금리 상승 부담, 중국 지표 부진 및 중국증시 급락, 반도체관련주 약세 압력 받으며 하락 (KOSPI -1.05%, KOSDAQ -2.27%)

금일 역시 강한 서비스업 경기로 인한 근원물가 부담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대내적 변수들 중 전일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에 1조원 가량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며 급락한 GS 건설은 국토부에서 83개 현장에 대해 추가 확인점검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8월까지 투자심리는 추가로 악화될 여지 존재.

추가로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PF 수수료 비리 의혹, 수신잔액 두달 연속 감소, 연체율 6.19%로 급증 등 부동산 PF로 인한 부실 문제가 재차 부각됨. 그러나 현재 금융위에서는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11년도 저축은행 부도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차등보상제를 통해 최대 5000만원 예금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나왔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SVB의 경우와 같은 뱅크런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고, 이로 인한 7월 금통위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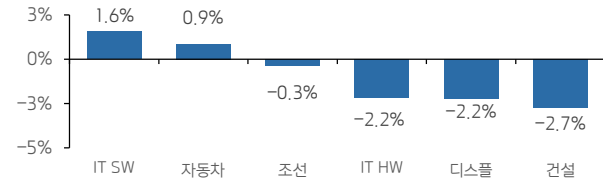
또한 전일 시장금리 급등으로 반도체 업종이 추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으로 최근 부각된 미중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감산효과 및 하반기 긍정적인 가이드스 제시 등 기대감은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단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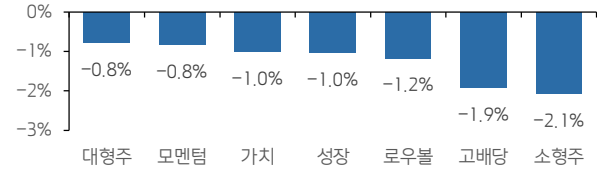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